

Advertorial

KT&G, 국가대표 사회공헌 기업으로 우뚝

문화공헌의 중심에서 '상상마당'을 외치다

홍대·춘천·논산 '지역 문화 거점' 기부청원제·상상펀드 지속 투자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도

KT&G 문화공헌의 중심에는 'KT&G 상상마당'이 자리 잡고 있다. 상상마당은 예술인들에게는 창작 활동 지원을, 일반인들에게는 넓은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설립 목적을 두고 있다.

현재 상상마당은 연간 2600여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국내 대표적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성장했다.

●KT&G 상상마당 홍대·춘천·논산... 문화 예술의 '골든 트라이앵글'

2007년 개관한 'KT&G 상상마당 홍대'는 실험정신의 인류메타미디어 지역 문화 랜드마크로 자리 잡았다. 추가로 KT&G는 지역사회의 문화적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2011년 논산, 2014년에는 춘천에 상상마당을 열었다. KT&G 상상마당 논산은 '교외형 문화체험 공간'으로, KT&G 상상마당 춘천은 '자연·문화와 연계된 복합 문화 예술 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지역 명소가 됐다.

이처럼 각 지역별 특성에 특화된 문화공간인 상상마당은 현재 연방방객 180만명에 이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 플랫폼으로, 지역 문화 발전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대표적 문화공헌 기업으로 인정받은 KT&G

이러한 KT&G의 노력은 대내외로도 인정받고 있다. 최근 KT&G는 국내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해 온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주최의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을 받았다. 상상마당을 통해 비주류 및 신진 예술가들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일반 대중들에게 폭넓은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다. '2015 메세나대상'에서 대통령상인 대상을 수상한 데 이어 '겉경사'이다. 문화공헌에만 지난해 사회공헌금액의 절반 가까이 투자한 KT&G의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KT&G는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활동 외에도 '기부청원제', '상상펀드' 등을 통해 매년 매출액 대비 2% 수준인 500억원 이상을 국내외의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투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총 808억원을 사용했다. KT&G 관계자는 "진정성에 기반한 사회공헌활동으로 사회와의 상생을 추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더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 KT&G의 상상마당은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과 방문객들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해 국내 대표적인 복합 문화예술 공간으로 빠르게 성장했다. 사진은 KT&G 상상마당 홍대. 사진제공 | KT&G



삼성전자, 지주회사 전환 카드 만지작

이재용 부회장 경영승계 가속도

삼성전자가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에선 지배구조 개편을 본격화하는 동시에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승계에도 속도를 내기 위한 것이라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는 29일 이사회를 열고 발표한 주주가지 제고 방안을 통해 지주회사 전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주가치를 최적화하기 위해 지주회사 전환 가능성과 해외증시 상장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다. 삼성전자는 현재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의뢰해 협업하고 있으며 검토하는 데 최소 6개월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전략과 운영, 재무, 법률, 세제 및 회계 측면에서 다양하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여러 단계에 걸친 장기간의 과정이 요구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주회사 전환을 포함한 삼성전자의

지배구조 개편은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필수적인 요소다.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율은 0.60%다. 자사주를 제외하고 오너가 삼성그룹사가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율은 총 18.44% 가량이다. 반면 외국인 지분율은 50.72%로 절반을 넘는다.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선 이 부회장 및 오너일가의 지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이다. 이는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이미 제안한 내용과 맞닿아 있다. 엘리엇은 삼성전자를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나누고 한 국거래스와 미국의 나스닥에 각각 상장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홀딩스와 사업회사로 나뉘면 지주회사는 자사주를 통해 사업회사에 대한 지분율을 확대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2016년 총 배당 규모를 지난해 3.1조원에 비해 30% 증가한 4조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롯데몰 은평' 내일 오픈

서울 서북권 첫 종합쇼핑몰인 '롯데몰 은평'이 12월1일 오픈한다.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과 연결돼 있으며, 광역버스 복합환승센터도 연계돼 있어 교통요충지로 꼽힌다. 특히 서북부 상권은 주변에 '스타필드 고양', '이케이 2호점' 등이 입점 예정이라 향후 치열한 경쟁이 점쳐진다. 부지 면적 3만3000여㎡(9980여평), 연면적 약 16만㎡(4만8400여평) 규모로 들어선다. 지하2층~지상9층에 쇼핑몰, 롯데마트(8일 오픈), 롯데시네마, 키즈파크(22일 오픈)가 들어서는 등 신개념 몰링 문화를 선보인다. 주차장은 지상 5층부터 9층까지 약 1500여 대 규모다. 특히 쇼핑몰에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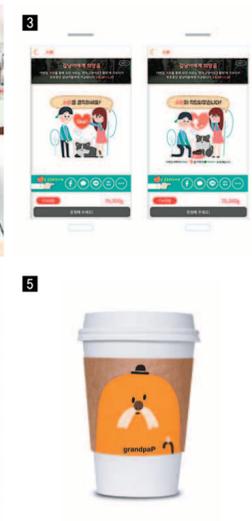
롯데몰 은평 외부전경. 사진제공 | 롯데자산개발

로별SPA부터 씨푸드뷔페까지 총 201개 브랜드를 선보인다. 마트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까지 3개 층에 영업면적 약 9385㎡(2839여평) 규모로 들어서며 문화센터를 포함해 체험형 장난감 전문매장인 '토이저러스'와 가전 전문매장 '하이마트'가 입점한다. 시네마는 8개관 총 1336석의 최신 시설로 들어설 예정이다. 정정욱 기자 jjay@donga.com

아이 러브 펫



1 동물사료기업 ANF가 마련한 길고양이를 위한 무료급식소. 2 창작뮤지컬 '더 언더독' 주연배우들이 유기견 후원 팔찌 비코 캠페인에 동참했다. 3 올라팻과 네츄럴코어가 선보인 '행복한 기부' 엠. 4 '동물자유연대'에서 남양주 동물복지센터 증축을 위해 판매하는 2017년 다이어리와 캘린더. 5 펫케어가 '유기동물 사랑나눔 캠페인' 일환으로 판매하는 커피.



길고양이 무료급식소부터 유기견 후원 커피까지

유기동물 따뜻한 겨울나기에 시민·단체들 온정의 손길 창작뮤지컬 '더 언더독' 배우들 후원 팔찌 캠페인 동참

유기동물에게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겨울이 다가오면서 동물단체 및 시민들의 참여가 유기동물의 따뜻한 겨울나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달력을 제작해 판매한 수익금을 기부하거나 반려견과 함께 걷는 만큼 사료가 기부되는 도그 워킹 행사, 업체들의 후원을 받아 좋은 물건을 싸게 판매하는 자선바자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 중이다.

동물 사료업체 ANF는 길고양이를 위해 무료급식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등 이미 한발 빠르게 유기동물들을 위해 기부하고 있다.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해 유기동물 후원에 나선 단체들도 있다. 국내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는 반려동물복지센터 보호시설 증축을 위한 2017 동물자유연대 캘린더와 다이어리를 판매하고 있다. 캘린더와 다이어리에는 동물자유연대에서 구조한 동물들의 사진이 들어가 있어 의미를 더한다. 특히 캘린더 1월 모델은 지난 9월 대구에서 학대를 받아 한쪽 눈을 잃게 된 강

아지를 선정했다. 흥현진 동물자유연대 팀장은 "남양주 동물복지센터에서 유기동물을 안락사 시키지 않고 입양될 때까지 보호하면서 장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시행하게 됐다"고 했다.

유기견 이야기를 다룬 창작뮤지컬 '더 언더독'은 유료티켓 1매 당 내츄럴밸런스 사료 100g을 기부할 수 있는 '유기견 후원 프로젝트' 캠페인을 진행한다. 12월2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 서울 대학로 유니플렉스 1관에서 열린다. 공연 관계자는 "유기견에 대한 관객들의 인식이 변했으면 하는 마음을 담아 작품을 준비하게 됐다"며 "공연에 서는 이례적으로 유기견을 소재로 하는 작품을 선보이는 만큼, 이와 함께 진행되는 다양한 유기견 캠페인을 통해 많은 관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한다"고 했다.

반려동물 모바일 플랫폼 서비스 올라팻과 동물사료기업 네츄럴코어는 스마트폰 앱으로 간편하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는 '행복한 기부' 서비스를

선보였다. 12월 유기동물들을 위한 기부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위해 사료브랜드 '베네M 어니스트'를 함께 선보인다. 착한소비를 지향하는 '베네M 어니스트'는 6kg 사료구매 시 600g의 사료가 '행복한 기부' 프로그램을 통해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추가로 전달된다.

반려동물 문화행사 '펫케어 페스티벌' 주관사인 펫케어도 '유기동물 사랑나눔 프로젝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따뜻한 커피 한잔으로 몸을 녹이고 커피 판매 수익금을 유기동물보호소에 기부해 상처 받은 동물에게 사랑을 전하는 캠페인이다. 커피 컵 홀더에는 '펫케어 페스티벌' 마스코트 '그랜파 피'가 그려져 있어 '생명존중', '행복공존'이라는 반려동물 참문화 정착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캠페인은 12월 크리스마스 시즌에 진행된다.

현재 정부차원의 동물보호소는 전국에 367곳 운영 중이다. 보호소의 동물은 평균 10일 동안 보호되다 입양이 되지 않으면 안락사 되는 실정이다. 이렇게 안락사를 맞이하는 동물들이 농림축산

식품부 2015년 조사 기준 1만8436마리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 때문에 안락사를 피하려는 사설 보호소들이 늘고 있지만 추운 겨울철이 되면 지원의 손길이 더욱 절실해질 수밖에 없다.

독일의 경우 전국 500여개 이상의 보호소가 있으며 이를 700여개의 동물단체가 동맹을 맺어 관리하고 있다. 단체들은 국가의 도움을 거의 받지 않고 후원금과 자체 수익원으로 운영된다. 정관수 반려동물참문화회장은 "유기동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우선돼야 하지만 올바른 생명존중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했다.

개인이 유기동물 후원에 동참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집에서 쓰지 않는 옷이나 이불 등을 모아 가까운 유기동물 보호시설에 보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특히 신문지의 경우 찬바람을 막아줄 뿐 아니라 배변패드 대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등 유기동물들이 시린 겨울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김현진 스포츠동아 객원기자

펫케어·마루코팅은 기본 반려견 맞춤 주택이 대세

반려동물을 위한 생활 맞춤설계 주거 단지 반려견주택이 눈길을 끌고 있다. 경기도 용인 처인구에 반려인들에게 최적화된 전용주택단지가 조성된 것이다. 반려견주택은 반려견의 슬개골갈구 예방을 위한 마루코팅, 소음문제를 잡아주는 방음 시공, 반려견 전용 수유장, 문을 닫아도 반려견이 드나들 수 있는 펫도어 등 반려견을 위한 생활 편의시설이 다수 마련됐다.

또한 각 주택마다 주문형으로 설계돼 반려인의 가족수, 반려견 수, 반려견의 크기는 물론 생활패턴을 모두 고려해 분양자의 요구사항이 반영된 맞춤형 주택으로 이어졌다.

박준영 반려견주택연구소 소장은 "반려견 주택은 반려견에게 최적화된 주택일뿐 아니라 사람들이 생활하기에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된 주거환경을 제공한다"고 했다. 반려견 전용주택 단지는 총 20세대 중 50%가 계약 완료됐으며 이달 말 입주한다. 김현진 객원기자



반려견주택 내부 모습.

편집 | 고창일 기자 ico@donga.com